

▶ 지금 우리 절에서는 - 서울 종로 조계사

공동체 만들기 · 경내 불사 조계사는 지금 변화 중



조계사는 구랍 22일 서울시,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와 함께 공동무역협약을 체결하는 세계 최초로 체결했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는 일주문에 걸린 편액 '대한불교총본산' 이 말해 주듯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현재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을 중심으로 성역화 불사를 진행 하고 있는 조계사는 내외적인 부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조계사가 지역 사회에서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것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마인드 케어 평생교육원은 2012년 5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도시마을공동체 실무과정을 운영했다. 이 곳 수료생들과 종로 지역법회, 대한불교 청년회 회원들 가운데 마을공동체 활동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행복마을센터'를 발족하고 서울시 종로구와 2012년 7월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마을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위한 시작했다. 그 첫 사업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수송공원 마을공동체-빌딩숲속 이웃사촌'을 조계사 인근 수송공원에서 진행했고, '행복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해 종로구 봉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랍 22일에는 서울시,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와 함께 공동무역협약을 체결하는 세계 최초로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공정무역사찰 협약에 따라 조계사는 사찰 내외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포함한 윤리적 소비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내부 불사도 한창이다. 조계사는 구랍 19일 낙후된 공양간 시설을 리모델링해 '행복한 공간 만남 공양간'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으며,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조계사 일주문에 현대미술기법으로 만들어진 사천왕상을 세우기도 했다.

조계사 사천왕상은 국내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스테인레스 조각을 이어 붙이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3년에 걸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앞으로 조계사는 올해 첫 불사로 어린이 포교를 위한 전용 법당을 건립에 들어갔다. 도심포교100주년기념관 지하에 건립되는 어린이 법당을 통해 조계사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조계사 1월 법회 캘린더

- 1월 15일 보름미타재일법회 (법문-종호 스님)
- 1월 18일 지장재일법회 (법문-일문 스님)
- 1월 24일 관음재일법회 (법문-서명 스님)
- 1월 31일 설 합동 대례제 (오전 8시, 오전 11시, 오후 1시)
- 1월 31일 갑오년 통일 의식 (오전 4시 50분) 문의 (02)768-8500

선원대중공양

1월 17일 대승사, 1월 22일 백담사(오전 6시 30분 일주문 앞 출발) 각 동참금: 40,000원

적멸보궁 탐방

2월 3일 상원사, 경암사, 법흥사 (오전 6시 30분 일주문 앞 출발) 동참금: 60,000원

약사기도 순례

2월 6일 팔공산 깃배위 선본사 (오후 6시 일주문 앞 출발) 동참금: 35,000원

2014 조계종 연수 교육 '확' 달라진다

법계별 교육부터 해외 연수 확대까지 '눈길'

조계종이 매년 실시하는 연수 교육이 올해에도 확 달라진다. 종단 최초로 법계별 교육이 실시되며, 지난해 많은 호응을 받았던 해외 불교 연수도 확대 시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8일 '2014년 연수교육'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2월 18일 '사찰경영지도자' 과정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법계 교육 △사찰경영과정 △경전 과정 △교양 과정 △전법 과정 △순례 과정 등 6개 과정, 총 31개 강좌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 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법계별' 연수교육이 종단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교육원은 "종단 법계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및 현대 사회에 맞는 승가상 구현을 위해 법계별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2박 3일 12시간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계별 연수는 △종단리더십실무과정(전덕·계덕, 승남 5~9년)4회 △종단리더십심화과정 I (중덕·정덕, 승남 10~14년)2회 △종단리더십심화과정 II (중덕·정덕, 승남 15~19년)2회 △종단 지도자 과정(대덕·혜덕, 승남 20~24년)2회 △종단최고위과정(중덕·현덕, 승남 25~29년)2회 등으로 구성되며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2015년부터 법계별 연수교육을 수료해야만

1·2·3급 승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대상자 스님은 해당 강좌를 5년 내 1회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한 스님에게는 연수점수 30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처음 실시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던 해외순례 과정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오는 2월부터 11월 말까지

6개 과정 31개 강좌 개설

법계별 맞춤 교육 최초 실시

티베트·실크로드·미얀마 등

해외 불교 연수도 확대돼

이번에 진행되는 해외순례는 '지안스님과 함께하는 인도성지순례' '홍선스님과 함께하는 일본 고찰순례' '해국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선종사찰순례' '해충스님과 함께하는 티베트 성지순례' '설정스님과 함께하는 실크로드 불교유적순례'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미얀마 성지순례' 등 총 6개 코스로 진행된다.

국내순례 역시 기존 '경주남산불적담사'



지난해 9월 진행된 조계종 연수 교육 프로그램 '일본 사찰 순례' 모습. 올해에는 실크로드, 티베트, 미얀마 등으로 해외 순례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백제불교문화답사'와 더불어 '폐사지 전문가 이지누 씨의 경주 폐사지 순례'와 '홍선 스님의 경북 불교문화유산을 찾아서'가 신설됐다.

경전 과정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선불교 분야 등 총 6개 강좌로 △지안 스님의 '법화경' △고우 스님의 '백법법문' △해주 스님의 '화엄경-입법계품' △현봉 스님의 '선어록강좌-원돈성 불문' △각목 스님의 '아비담마 길라잡이' △김호성 교수의 '동아시아 불교사'가 개설됐다.

스님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현대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양과정도 다채롭다.

교양과정에는 원로 물리학자인 장희의 서울대 명예교수의 '불교와 자연과학' 강좌를 비롯해 △황광우 작가의 '서양고전의 이해' △김이관 포니정호 예술 감독의 '서양음악 감상법(바흐에서 비틀즈까지)' △유지나 동국대 교수의

'영화로 세상 읽기' △강신주 철학자의 '동양 고전의 이해' △손철주 미술평론가의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등 6개 강좌를 선보인다.

스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봉사활동 과정은 교구본사 복지법인 산하 8개 복지시설을 자원봉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전문 인정과정도 14개 과정을 추가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지고 있는 스님들의 연수 교육비 지원은 '승남 10년 미만 50%', '일반 스님 25%'로 동일하게 운영된다.

교육부장 정도 스님은 "지난해에는 약 4000여 명의 스님들이 교육원 연수를 수료했고, 올해에는 4200여 명을 목표로 삼고 있을 정도로 연수교육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스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비롯해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과거 폐습, 시비 벗어나는 한해 되자”

조계종 등 주요종단 신년하례 불기 2558년 종무 행정 시작

조계종 등 한국불교 주요종단들이 불기 2558년 신년을 맞아 시무식과 신년하례를 잇달아 열고 한해의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 경내 통일기원대전에서 종정 스님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밀문 스님과 원로의원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기홍 중앙신도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 종단 내 출재가 주요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종정 진제 스님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

진제 스님은 신년 하례 법어를 통해 "나누가 꽃에 집착하면 열매를 맺기 어렵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만 비로소 더 큰 바다에 들 수 있다"면서 "누적된 과거의 폐습, 시비와 갈등을 내려놓고 지계로서 심신을 청정히 하고, 수행과 기도 포교로서 화합된 불자와 존경받는 승가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출가수행자는 구도의 등불을 밝히고



조계종은 1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불기 2558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과 진각종 등 주요종단들도 신년하례와 시무식을 열고 한해의 시작을 알렸다.

재가자는 각자의 기량에 따라 지혜와 복을 쌓으라"면서 "갑오년 한 해에는 물과 같은 덕행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감추고, 모으기 보다는 베풀며, 사회 구성구석 스며들어 갈등을 분할하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시무식을 열고 갑오년 종무행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각원장 스님들은 신년 인사를 통해 한해 지향해야 할 종무 행정 목표를 상기시켰다.

자승 스님은 신년 인사에서 "33대 집행부부터 매월 자리 나눔 방문을 진행해 왔다. 이제는 나눔과 봉사를 사부대중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1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시무식을 봉행하고 새해 종무를 시작했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신년사에서 "활달하고 푸른 기운을 갖춘 진취적인 청마의 해를 맞아 부강한 나라와 국민행복 시대를 염원하며 국민과 불자 모두가 근본의 자리에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무식에서 도산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원)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그간 모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104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진각종(총무원장 회정)도 1월 3일 시무식과 신년하례식을 열고 한해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성초 총인은 법어를 통해 "포교, 교육, 복지, 문화 관련 종단의 인사들이 함께 한 이 자리는 환희한 자리"라면서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종단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화합하고 정진할 때 서원은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푸른 말의 기상처럼 모든 기관이 원하는 바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종일 기자

창 종 공 고

봉

(사)대한불교 ◎ 조계종

축

조국통일을 위한 서부전선 대한불교 대가람 총림 승가들의 거룩한 뜻을 모아
조국 평화통일을 위하여 모두 협력합시다.

종 정 일 선 운동암 대종사

총무원장 혜우 도암

법계위원장 도연 호법원장 법등 교육원장 덕산

사무총장 수봉 비구니회장 월암 비구니부회장 묘진 묘각

종 도 일 등

불기 2558(2014)년 1월 2일



평화통일사



종정 일선 운동암 대종사

■ 종정스님 주석사찰 :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76-35 (마정로 76-35) 평화통일사 ☎ 전화 031)952-7031